

第21回 全国民俗芸術競演大会

民俗놀이

# 조심기놀이



日時：1980. 10. 28～31

場所：濟州市 公設運動場

平安南道民俗保存会

## 民俗競演大会에 參加하면서



平安南道知事 朴 仁 珽

国土가 分断된지 於焉30年이 지나고, 西道民俗이 漸次 사라져가는 느낌이 드는 現時点에서 第21回 民俗芸術競演大会 開催를 契機로 固有의 西道民俗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된 데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本道에서 처음으로 出演하게 된 「조심기놀이」에 對해서 簡單히 紹介하면,

本道는 南으로 大同江을 끼고 黃海道와 接해 있고, 東으로는 狼林山脈을 사이에 두고 咸鏡南道, 江原道와 이웃하고 있으며, 北쪽은 妙香山脈의 一部와 清川江을 사이로 平安北道와 隣接하고 東北은 山岳地帶로서 西南으로 가면서 平野를 이루고 있습니다.

總面積는 14,934km<sup>2</sup>인바 總耕面積 77%는 田作으로서 生活하며 特色은 2年3作法을 쓴 것입니다. 特히 「조」는 거의 無肥料로 作農하므로서 前作의 殘肥를 利用하는 耕作法을 써 왔습니다. 「조」밭이 田總面積의 44%나 占하며 品種은 平壤種, 陽德種, 黃조糖等으로서 알도 크고 즐기도 많습니다. 收穫은 많으나, 퇴약 빛에서 김을 매는 것은 다른 穀食에 比해 相當히 힘이 듭니다.

지금쯤 秋收期가 되면 늘어진 조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貌習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出演하는 「조심기 놀이」는 밭갈이서 부터 秋收까지 婦女子들의 힘겨운 피땀어린 過程을 노래로 民俗化된 것입니다. 素朴하면서도 情緒的인 面貌를 갖추고 노래와 律動으로서 出演하오니 鑑賞하여 주시고 變함없는 聲援있기를 바라나이다.

感謝합니다.

1980. 12. 28

## 「조심기 놀이」解説

平安南道 14郡 어느 地方엔 가도 조는 많이 심는다. 特히 山間僻地인 陽德, 孟山寧遠, 德川, 价川地域은 「조」의 主産地이며 主食이 되고 있다. 其外 地方에서도 조밥을 즐겨 먹는다.

地勢로 보아, 조, 옥수수, 감자등이 잘 되며, 조는 一毛作으로 세번 김을 매어야 하며, 조잎은 갈입처럼 거치러워 김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收穫率이 높으며 가을에 무르익은 조이삭은 땅에 달뜻이 느러져 農夫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기도 한다.

收穫이 많은 탓인지 아낙내의 打令소리는 김매기에 지친 몸을 달래 주기도 한다.

이번 出演에 있어서 「조심기 놀이」를 1年 四時 1幕全場에 거쳐 밭갈이, 씨부리기, 김매기, 추수等 作業過程을 打令, 노래와 演技로서 進行한다.



金 玉 仙

## 《配 役》

고	랑	파	기	.....	염봉진, 이일용
씨	뿌	리	기	.....	봉경덕, 유해정
					주복희, 이한성
					안은숙, 신경애
					오승진.
재	뿌	리	기	.....	정화윤, 정순호
					전봉녀, 김 섭
					김유라, 김용훈
흙	덥	기	.....	김옥선, 김화윤	
					정순호, 전봉녀
					김 섭, 김유라
					김용훈.
밭		기	.....	봉경덕, 유해정	
					주복희, 이한성
					안은숙, 신경애
					오승진.
조	심	기	.....	김옥선, 김화윤	
					정순호, 전봉녀
					김 섭, 김유라
					김용훈.
김	매	기	.....	전 원	
추		수	.....	전 원	
조	자	루	기	.....	전 원
마	당	질	.....	김옥선, 김화윤	
					정순호, 전봉녀
키		질	.....	주복희, 신경애	
					오승진 외 11명